

## 예수님이 오신다

요한 계시록 22:6-12

요한계시록 22 장 6 절부터 12 절까지를 함께 읽고 제가 읽은 다음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하시니 거룩한 선지자들의 하나님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곧 이루어질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요한은 이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본 후에 나는 이 일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되 '나는 네 동료 중이며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중이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의 상이 나와 함께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자, 이 특별한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오심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라는 사실,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사실, 순간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갑작스럽고, 신속하며, 마지막으로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의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이 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22 장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가 펼쳐져 있고 문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와 인간의 반란은 끝났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이 시점에서 반란은 마침내 분쇄되었습니다.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역자들은 불못에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영원한 보좌에 앉아 땅의 왕, 우주의 왕으로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거룩함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국 안의 모든 것을 특징짓습니다. 죄는 존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구속받은 자들은 이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의 영속성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것만이 22 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2 장에 들어가면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영생을 침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생명수 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장소인 하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22 장에서는 땅과 하늘이 재창조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투명 빛의 타오르는 프리즘,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이 영원한 상태에 안착했습니다. 빛, 아름다움, 거룩함, 기쁨, 하나님과 어린양의 임재, 어린양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모두 영원한 실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2 장과 3 장에서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았고, 교회의 성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4 장에서 교회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고, 6 장에서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봉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끔찍하고 끔찍한 심판이 인간에게 내려져 3년 반 동안 지구의 절반 이상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이로움과 공포의 단조로운 장면들.

그런 다음 우리는 사탄의 사람, 적 그리스도가 구덩이에서 올라와 악마들과 함께 세상을  
사로잡아 사탄 숭배로 이끌고 비교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의 길을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모두가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마지막 행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미 사탄이 왕국에서 풀려난  
후 지옥에서 마지막으로 결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반역이 무너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이 흔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지옥이  
모두 제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속이 완성되고 낙원이 회복되고 불멸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라고 말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라고 묻는 겁니다.

22 장 6 절 이후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야?"라고 묻는다면?

글쎄, 그것은 몇 가지 마무리 발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강조점은 여기서 읽은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일이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 대응하고 더 잘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환난이 올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6  
절부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구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이 구절들은 짧고  
빠르게, 거의 숨이 멎을 정도로 빠르게,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독립된 하나의 진술이지만, 각각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마치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격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7 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 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 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긴박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천재성은 우리가  
진리와 내용과 함께 감정을 포착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진술을 빠르고 뾰족하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 절에 이르면 거의 한숨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에 응답하고  
돌보라고 촉구하는 긴박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에게 경고하는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주로 6 절부터 12 절까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즉각적인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분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믿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믿습니다. 성경은 환난이 세계 평화의 위대한 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계는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불법, 거짓 종교, 악마 숭배, 배교가 전성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종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징조를 보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거라면, 그리고 곧 오실 거라면,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예배, 즉각적인 선포, 즉각적인 봉사 등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 예배, 선포, 섬김, 이 네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6 절을 보면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하시니 거룩한 선지자들의 하나님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곧 행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참된 일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낮이요, 지금은 시간입니다. 낮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어요. 아버지는 무디의 전도사였고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저는 필라델피아 외곽의 록리지에 있는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전교생 앞에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휘두르던 통나무를 놓쳐 두 발을 잘랐다고 발표했죠. 당연히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물론 선생님이 전화를했고 그들은 어머니와 이런 모든 종류의 일에 동정하고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주말에 학부모회 회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저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화가 나서 반항을 좀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선생님이 교실을 나갔을 때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로 가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2 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책상에서 책상 사이를 뛰어다니며 뛰어다녔어요. 봤죠? 그리고 당연히 성공했죠. 그렇죠?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다 먹어치웠죠. 애들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알아요? 그녀가 들어와도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어와서 책상 두 개 사이에 저를 붙잡은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저는 상당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제 행동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부터 저는 복도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정형외과용 신발을 신으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셨어요.

아시죠? 조용한 타입이셨어요 그렇지 않겠고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무슨 짓을 하면 들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곧 돌아오실 거라는 생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내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권위를 나타내는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자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보통 우리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회의 때문에 집을 비우시면 엄마가 들어와서 다음 날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우린 정신 차렸죠. 저는 쓰레기를 버리고 누나들은 침대를 만들었죠. '아빠가 집에 오실 테니 하루 동안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해보자'는 거였죠. 엄마는 "우리 애들 정말 착하구나"라고 말씀하셨죠. 아시죠? 6 일이라니, 우와. 그거 알아요? 하루요 하지만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6 절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이 말씀" - 요한 계시록의 모든 말씀, 이 모든 예언은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어 곧 이루어질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보를 보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 책은 진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위조가 아니며,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찬 동화가 아니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성하고 권위있는 것입니다.

"위작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위조자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류를 정죄하는 책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정확하다고 하느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1 장 1 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자기에게 주신 것이니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 요한에게 나타내셨느니라" -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맨 마지막에 완전히 원으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파운드짜리 얼음 케이크만한 엄청난 우박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 마일에 걸쳐 말의 굴레 깊이까지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을 수 없는 대학살과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태울 불이있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물의 3분의 1이 썩고 시어지고 오염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도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나중에 남은 사람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신들이 지옥에서 나올 것이고, 9장에 나오는 구덩이의 흑암이 풀리고 귀신들이 온 땅을 돌아다니며 땅을 감염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계시의 측면에서 1,000 번을 쳤습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그는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그는 두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래의 기록은 하나님의 과거 기록만큼이나 완벽할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땅과 물과 바다와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의 절반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나라들이 아마겟돈에 모여 싸울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자들이 순교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동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이 결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즉 "무효"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은 항상 내가 그것을 보낸 목적을 달성 할 것입니다.

이제 6 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셨느니라." - 여기에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 타케이 - 우리는 여기서 "타코미터"라는 단어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 타코미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엔진의 RPM 을 측정하는 장치일 겁니다. 속도는 단어입니다-타체이. 곧은 빠르게, 빨리라는 뜻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가 곧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빨리 오시리라"는 뜻이죠. 그것은 갑자기 총알처럼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가 오면 그분은 빨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이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 장에서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는 글을 쓰면서 "물 없는 우물"이라고 부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4 장 3 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하리라"고 말합니다. - 보이시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떠돌고 다니는 여러분,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항상 그렇듯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오지 않으실 거예요. 알죠?" 이는 마치 "나는 한 번도 죽지 않았으니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에 있었고 땅이 물과 물 가운데서 섰으며, 그 당시의 세상이 물로 넘쳐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꺼이 무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그대로 계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6 장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관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대비하여 불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한 번 파괴하셨습니다. 그분은 물이 아닌 불로 다시 파괴하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분은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일에 대해 무지하지 말라, 하루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 뭐라고요? - "천년이고 천년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면 왜 안 오시나요?"라고 물으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주님은 약속에 대해 느슨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며 "어떤" - 뭐라고요? -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어리석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6 절 말미에 "내가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십니다 - 그들은 누구이며, 이 둘로스는 누구이며, 이 종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신자들입니다. 로마서 6 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간단히 말해서 6 장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6 장과 17 절의 한 구절만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이었던 때에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훈의 모양대로 마음에서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22 절,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더블유이고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악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7 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하세요. 여기에 있는 영적 원리에 순종하세요. 주의를 기울이다 (테레오)는 지키다라는 뜻으로, 여기 있는 원칙을 생활 속에서 주의하거나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 무엇을 하라는 뜻인가요? - "내 계명을 지키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장 15 절, 21 절, 23 절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 장으로 넘어가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준수하고, 관찰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장과 3장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중요한 전략적인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몇 가지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원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순종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협이 되는 순종도 있지만 그것은 핵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이번 주에 어떤 남자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어린 아이가 하이체어에 앉아 있는데 아빠가 '앉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아이는 '앉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했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앉지 않으면 널 쓰러뜨릴 거야'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이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일어서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순종이지만 그건 순종의 정신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듣고 있던 같은 사람이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에 120.00 달러를 벌고 주님께 10.20 달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것이 순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순종의 정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율법주의처럼 들리는데, 이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저는 순종과 순종의 정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방에 "밀대로 아이들을 때리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삼으로 아내를 때리지 마세요" 라고 적힌 것도 없습니다.

"그건 끔찍하다."라는 시스템이 있죠. 전 그런 걸 상기할 필요가 없죠. "욕조에 아이를 빠뜨리지 마세요." 화장실에 그런 규칙을 걸어놓지는 않아요. 사랑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알겠어요? 다른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올바른 관계를 위해 순종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순종과 순종의 정신의 차이는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음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등등 등등 등등.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문장으로 이해됩니다. 사랑"(10절)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꺼이 자신을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집에 십계명을 못 박아 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밟으실 거야."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오, 안 돼, 이제 내가 당할 거야"라고 말하며 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질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나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제가 당신을 슬프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이 순종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정신은 - 이제 이것을 보시고 정의를 내리자면 - 강제성이 없는 영역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순종의 정신은 강제성이 없는 영역에서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순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숭배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잔뜩 만들어서 붙이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성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다른 이유입니다. 율법주의는 "아, 나는 거룩해지고 싶어요, 경건해지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 점수에서 브라우니 3 점을 뺏으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의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순종하는 사랑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순종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원리를 배워야 하며, 그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호, 요한 계시록, 우와, 우리 모두 이상한 것들을 볼 수 있어."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오락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게 뭔지 아세요? 동기 부여입니다. 저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 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그는 "이런 일이 풀어질 것을 보고" - 사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보고 -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추측만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14 절 말미에 "너희는 평안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락이 아니라 동기 부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이든,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예배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8 절, "그리고 나, 요한"- 저는 전에 요한이 왜 이렇게 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여하는

일에 너무 압도되어 "그리고 나, 요한,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 라고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요한복음 21 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위를 둘러보며 "저 사람은 어때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 장에는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만찬 때 가슴에 기대고 있던 제자를 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만찬 때 그분 옆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는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그에게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환상적입니다."당신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 보이시나요? 그는 그 생각을 정말 좋아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 요한은 이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듣고 본 후에, 나는 이 일들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롭네요. 그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글썄요, 그는 전에 거기에 있었어요. 19 장으로 돌아가서 그는 너무 흥분합니다. 이 천사 - 다른 천사가 와서 19 장과 10 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나는 그의 발 아래에서 그를 경배하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렇게하지 말라. 나는 주의 동료 중이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주의 형제 중 하나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22 절과 9 절로 돌아가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되 행하지 말라" - 잘라내세요, 요한 - "나는 네 형제 선지자와 말씀을 경배하는 자 곧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동료 중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 일어나, 요한, 나는 천사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우상 숭배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에 너무 압도당하고 감격해서 사자와 그를 보내신 분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도 제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 일어나세요, 잘못 보셨어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스도인 중에는 너무 그리스도인 같아서 그리스도가 곁에 계시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기 시작하고 9 절에서 천사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잘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는 예배입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예배가 뭐죠? 예배 오르간 음악과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예배입니까? 예배란 무엇인가요?"

몇 주 전에 우리는 시편 26 편의 예배에 대해 조금 공부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편 26 편으로 돌아가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간단합니다. 여기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의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자를 보고, 그 다음 그의 예배를 봅니다. 참된 예배자의 네 가지 특징, 참된 예배자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찬양하고 당신의 모든 능력에 감사하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10 달러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손톱을 물어뜯는다면, 그 예배는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생계를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경질적인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바비큐를 터뜨린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신뢰에 대한 진술과 그 신뢰의 실제 사이에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진정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1 절,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며 주를 신뢰하였사오니"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 제 마음을 보소서,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무언가 감정에 부딪힐 때 느끼는 일종의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신뢰, 즉 전적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에 대한 집착입니다. 3 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음이니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3 절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는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며 살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4 절에 "나는 헛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며 위선자와도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며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네 가지 특징. 첫째,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둘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는 진리 안에서 걷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넷째, 그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특징이며,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갈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다윗은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6 절에서 "내가 정결하게 손을 씻으리니 주여 주의 제단을 이루리이다"라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참된 예배의 네 가지 요소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네 가지 특징, 예배의 다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7 절, "내가" - 뭐라고요? - "감사"의 목소리로 알려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감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 찬양하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감사.

그리고 7 절에서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암송해 본 적이 있나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끔 성경 전체를 암송하곤 했어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작은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의 기도문을 읽으면 위대한 기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또 계속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계속 암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에 이어 예배를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8 절, "주여, 나는 주의 집의 거처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계신다는 의식적인 임재 속에서 매 순간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바로 돌아가게 하는 신뢰입니다. 9 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모으지 마옵소서" - 하나님, 간구합니다. "손에 장난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직하게 행하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이건 제 문제입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감사와 찬양, 그분의 임재를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12 절에서는 "내 발이 고른 곳에 서 있나이다", 즉 걸려 넘어질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 즉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는 평평한 곳에 서서 주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단순하고 단순한 그림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신뢰, 헌신을 전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모든 것은 신뢰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 장 18 절에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겸손하고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너희 상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면 상급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천사를 공경하고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 천사를 공경하고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9 절,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경배와 찬양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노래나 찬양이 있나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에 다 있습니다. 4 장, 5 장, 7 장, 11 장, 15 장, 19 장만 읽어보시면 구속받은 자들의 예배 노래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그분이 곧 인간에게 - 뭐라고요? -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예배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인 즉각적인 선포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숨겨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전파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10 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더라." 만약 누군가가 절대적인 멸망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각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전파하는 데 바빠야 합니다.

엄청난 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책을 닫을 수 없으며 그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가까이"라는 용어는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계에서 다음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사람이 흰 옷을 입고 곁에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서 데려가신 이 예수께서" - 뭐라고요? - "가시는 것을 본 것 같이 너희도 가라"고 했습니다. 왜 증인이 되어야 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진리와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닫힌 책이 아니며 봉인된 책이 아니며 인간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고 심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대한 교회는 항상 재림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끊임없이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첫째,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위해 그분을 대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분을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 절에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 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요"라는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라고 묻습니다.

이상한 구절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이 메시지를 거부하면 영원히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불의하고 이 메시지를 거부하면 영원히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

아버지는 항상 "죽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생전의 모습을 영속적으로 결정화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당신의 영원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책의 경고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영원히 불의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한 결정이 한 사람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 그 사람의 영혼을 저주하고 언젠가는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냉정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지어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충격적인 종류의 여운이 남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는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운 자로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우리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상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그들을 옳게 만들거나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복음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죄를 정죄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강박해지고 굳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맛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예언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전파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라.

누군가와 함께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행복을 기원하는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 식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주 앉아 지옥에 대해 이야기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로 오는 영원한 저주에 대해 누군가에게 경고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페달을 밟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에서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예배, 즉각적인 선포의 필요성을 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섬김, 12 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의 상이 나와 함께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 다시 한 번 갑자기, 신속하게.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 아무도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충격을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긴급한 상황과 사람들에게 닥칠 충격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13 장 33 절에 "너희는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삼가 깨어 기도하라. 인자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과 같아서 집을 떠나 종들에게 권세를 주고 각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며 짐꾼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저녁이나 자정이나 새벽이나 아침에 오실까 두려워하여 갑자기 오셔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까 두려워하라." 슬픈 일입니다.

누가복음 12 장 35 절을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같이 하여 그가 오셔서 두드리실 때에 즉시 문 열게 하라.

"주인이 오실 때 주인이 지켜 보는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띠를 띠고 그들을 앉게하여 먹게하고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그가 두 번째 보초로 오시거나 세 번째 보초로 오셔서 그들을 발견하시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침범당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인자가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하리라." 주님을 위해 할 일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고, 준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가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 12 절 - "나의 상이 나와 함께 있어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쎄, 그건 너무 물질주의적이지 않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러분과 전에 공유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보상을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나쁜 동기가 아닌데도 항상 그것이 동기라고 폄하할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경기에서 여러 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주를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서 우승했다고 해서 "오, 물질주의적이고 비열하고 이기적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그렇게하기를 기대하죠. 그렇지?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를 물질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녀에게 와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오, 물질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와 결혼해야 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다른 것들의 자연스러운 보상인 것들이 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보상은 충실한 봉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할아버지는 성경에 다음과 같은 시를 쓰셨습니다."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내 인생의 계획을 그대로 보여 주실 때, 내가 여기서 그분을 막고 저기서 그분을 견제하고 내 뜻을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내 구주님의 눈에 슬픔이 있고 여전히 나를 사랑 하시지만 슬픔이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부유하게 하셨지만, 나는 그분의 은혜를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가난하게 서 있고, 기억은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따라 유령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황량한 마음은 흘릴 수 없는 눈물로 곧 깨어질 것입니다. 빈 손으로 얼굴을 가릴 것입니다. 왕관을 쓰지 않은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주님, 제게 남은 세월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시고, 부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모양대로 빛으소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느라 바빠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쓰레기를 제거하고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예배, 즉각적인 선포, 즉각적인 섬김의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언젠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이웃에게 증거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일을 하고 언젠가는 수업을 가르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 그리고 저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할 때입니다.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전 기독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말합니다.

17 절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듣는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목마른 자는 오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얻게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한 마을에 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농부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망쳐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나폴레옹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그들은 그의 침착함과 용기를 보고 그를 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를 낙인찍어 평생 낙인을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팔을 불에 달궈서 그의 오른손 손바닥에 N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가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은 나폴레옹의 소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즉시 도끼를 들고 불룩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그 손은 나폴레옹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믿었고 그것을 위해 손을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에게도 전혀 의미가 없는 시시한 일로 장난을 치다가 예수님이 완전한 보상을 받으시러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가 수고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봉사, 즉각적인 선포,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전할 때이고, 즉각적인 예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이며, 즉각적인 순종, 지금이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러한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너무 비참하게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마음속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 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이것저것에 관여하느라 제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죄송합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건 알아요, 곧 오실 거라고요.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만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한 주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며 살았는지, 제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았는지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항상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고 싶고, 당신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예배하고 싶고, 당신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싶고, 당신이 오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을 정말로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